



화단 및 분화용 해국 재배기술

Cultivation and Using for Garden and Cut Flower of *Aster spathulifous* Native to Korea.

가을에 피는 대표적인 야생화 중 해국이 있다. 이름에서 보듯이 주로 바닷가에 자생하며 키가 작고 꽃도 크고 아름다워 분화용이나 화단용으로 우수한 화훼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가을이면 대부분 야생화들은 꽃은 물론 잎까지 떨궈 버리는 데 비해 해국은 주걱모양의 잎은 물론 아름다운 꽃을 피우니 이 가을에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자생화 중의 하나이다.

1. 생리생태적 특성

해국은 반목복성의 여러해살이 풀로써 키는 30~60cm로 해변 암벽이나 바위틈에서 자란다. 줄기는 반목본성으로 비스듬히 자라고 기부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 겨울에도 잎이 반상록으로 남아 있다. 꽃은 7~11월에 두상화로 피는데 연보라색이며 줄기나 가지 끝에 달리고 지름이 3.5~4cm이다. 해국은 다른 국화과 식물들처럼 단일조건에서 꽃눈이 분화되어 꽃을 피우게 된다. 추위나 더위는 물론 건조에도 강해 이용 가능성이 매우 많다.

2. 재배기술

가. 번식



송 정 섭

농업연구원, 이학박사

(031-290-6140,

songjs@rda.go.kr,

www.wildflower114.com)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화훼과장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DA)



▲ 꽃이 만개한 모습



▲ 꽃대가 나오기 전의 잎과 포기 모양

해국은 삼목, 뿌리나누기, 실생 어느 것이나 잘된다. 대부분 야생화들처럼 해국도 채종 즉시 파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채종 후 건조하게 저장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하여도 발아율이 높다. 육묘 시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심한 건조와 과습은 금물이다. 육묘상태를 보아가며 관수를 조절하면 된다. 파종 후 본엽이 4장정도 나온 후 가식한다. 씨앗을 뿌려도 2년이면 꽃이 핀다.

나. 정식 및 관리

화단용이나 분화용으로 기르는 해국은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잘 자란다. 비옥한 토지에서는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잘 자라고 아주 척박한 곳에서는 1년에 한 두 번 복합비료를 준다. 대량 군식용으로는 봄철에 복토를 해주어야 최상의 생육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다.

분화용으로 심을 경우 화분의 높이가 가급적 낮은 것이 좋다. 용토는 부엽토 3, 배양토 3, 마사토 4 정도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특히, 햇볕이 잘 드는 양지쪽에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고, 비료는 고체비료를 1년에 2회 정도 주든가, 액체비료를 1,000배액하여 4~7월까지 열흘에 한번정도 준다. 분갈이는 2년에 한번정도 꽃이 진후 또는 봄에 한다.

생육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 꽃이 들쭉날쭉 피기 때문에 개화기를 역산하여 50~60일전 즉 장

마 초기(6월 말경) 줄기를 뿌리에서 가깝게 한번 잘라주면 곁가지가 많이 나와 꽃을 많이 볼 수 있고 높낮이가 고르게 되기 때문에 보기에 아주 좋다.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잘 자라고, 충분한 광선을 요하며, 노지에서 월동하고 16~30℃에서 잘 자란다. 보통으로 관수 관리한다.

다. 시비관리

해국은 다년생 식물로서 분얼력과 환경적응성이 강하며 다비성이다. 정원 및 화단재배시에는 부엽퇴비 2,000kg/10a를 살포하여 주거나 유기질 비료를 300kg/10a를 심기 전에 뿌려주고 그 후 생육 중에는 4종 복합비료 등을 1,000~1,500배로 희석 월 3~5회 엽면시비한다. 분재배시에는 구비나 유기질 비료 등을 분의 크기에 따라 적당량 시비하여 준다.



▲ 만개했을 때의 자생지 군락

라. 병해충 방제

병충해는 비교적 강한 편이나 병해로는 여름철 장마기에 고온 과습으로 뿌리썩음병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기적으로 살균제를 살포해야 한다. 그리고 잎을 가해하는 담배나방 유충과 개화직전에 진딧물을 살충제를 살포하여 방제하면 관상가치를 높일 수 있다. 🌿